

# 순천정원박람회장서 광양 여행 떠나요

내달 1~6일 '광양시티투어' 버스 운행  
동문 정류장서 매일 오후 2시30분 출발  
구봉산 전망대 등 관람 후 박람회장 복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광양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광양시티투어' 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운행한다.

광양시는 6월1~6일 매일 오후 2시 30분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광양시티투어 버스가 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천에서 출발한 버스는 오후 3시 10분께 광양 인서리공원에 도착하고,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오후 3시 50분) 등을 거친다.

광양불고기 맛집이 모인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구봉산 전망대를 관람한 뒤 오후 7시 40분에 정원박람회장에 돌아와 여행을 마무리한다.

이번 광양시티투어는 문화예술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 여행으로 구성됐다.

인서리공원은 14채의 한옥을 새로 단장해 만들었다. 카페 'Aa!'와 예술전시공간 '반창고' 등이 들어선 복합 문화공간이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시의 정원', '리처드 케네디:에이시-듀시',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등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해발 473m 구봉산 전망대에서는 광양만을 배경으로 이순신대교, 여수국가산단, 순천왜성, 남해대교 등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광양시티투어는 전화 예약(061-794-8804-5)하거나 현장 탑승 등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 5000원, 군인·경로·학생 4000원, 장애인·미취학 아동 3000원 등의 이용료가 있다. 시설 입장료와 여행자보험, 식비는 별도이다.



광양시가 다음 달 1~6일 매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출발하는 '광양시티투어'를 진행한다. '구봉산 전망대' (위)와 한옥 문화공간 '인서리공원'. <광양시 제공>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광양시티투어는 '수요일 역사코스'와 '금요일 야경코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6월3일) 연계 일정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객 4명과 식사 1식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15명 이상 단체 여행객에게는 단독 자율 여행(월·화·목요일)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 '관광안내'의 '시티투어'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시티투어는 관광객이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여행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19년 870명이었던 이용객은 이듬해 164명으로, 80% 넘게 급감했지만 최근 일상 회복에 맞춰 수요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시티투어 이용객은 437명으로, 전년(142명)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지난해 5~11월 광양시티투어 탑승자 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티투어와 해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5점으로 높았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6월 첫날부터 연세간 운영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광양시티투어는 짧은 시간에 광양의 핵심 관광지와 먹거리를 두루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판소리·재즈여행도

세계적 재즈 그룹 '지리' 콘서트  
26~27일 오전그린광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오전그린광장에서 26~27일 판소리와 재즈가 어우러진 이색 무대가 펼쳐진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오전그린광장에서 세계적 재즈 그룹 '지리(CHIRI·사진)'의 크로스오버 콘서트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무대에는 중무형 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배일동 명창과 후주의 재즈 드럼 연주자인 사이먼 바커, 재즈 트럼펫 연주자 스킷 톰플러 등이 오른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판소리와 드럼, 트럼펫, 피아노 연주 등 동·서양 선율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다.

순천 출신인 배일동 명창은 지난 2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오전그린광장에서는 오는 6월2일 오후 4시 최백호·동화락 공연과 3일 오후 5시 남상일·박구윤·김산옥 '조선판 풍류', 7일 오후 7시 재즈 가수 나윤선 콘서트 등이 잇따라 열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장에서 판소리, 재즈가 어우러진 공연과 함께 서서히 저무는 노을, 그리고 화려한 경관으로 물들어가는 밤의 정원이 주는 매력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노고단 정상 철쭉 만발 25일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해발 1507m 노고단 정상에 활짝 핀 분홍빛 철쭉을 보며 봄을 뒤로 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구례군 제공>

## 여수 향일암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쓰세요

시, 천사벽화마을 등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여수 천사벽화마을거리, 향일암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여수시는 올해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천사벽화마을거리, 동동다리, 성산공원, 향일암 등 4곳에 40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2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주요 관광지, 공원,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왔다.

지난해까지 여수지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장소는 모두 1440곳이다.

박한옥 여수시 스마트정보과장은 "시민들의 통신료 절감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대상자 모집 내달 9일까지...활동비 최고 200만원 지원

곡성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젊고 활기찬 청년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곡성에 사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5명 이상이 모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되면 매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군은 이들에게 활동비 최고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식 등록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되며, 동아리·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활동 분야는 사회봉사, 재능기부, 교육, 학습, 문화, 예술, 취업·창업, 지역 교류 등이다.

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단체 활동,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사교모임,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결성돼 활동하는 단체, 일회성·단기성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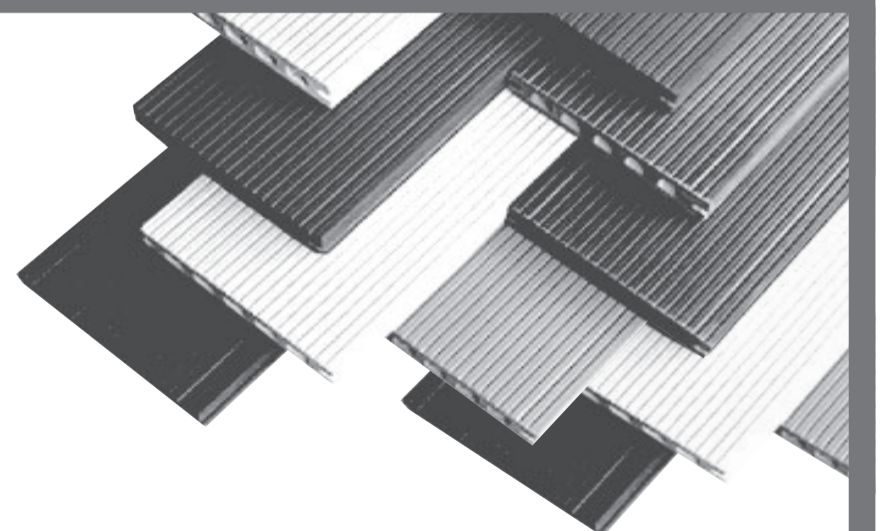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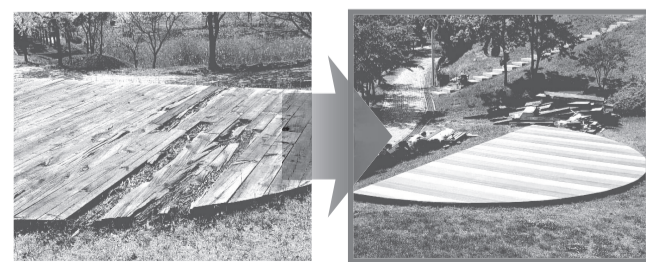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